

길 잃은 문명충돌론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2022.07.06.

문명끼리 뭉쳐 싸울 거라고?
한국, 중국문명 거부감 크고
이슬람문명 안방싸움이 첨예

남의 사정 쉽게 단순화했고
국가간 이해충돌을 간과했다

'중동' 하면 종교분쟁, 극단주의, 테러를 떠올린다. 이러한 혼란의 뿌리에 이슬람이 있다는 주장도 따라온다. '문명충돌론'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은 보편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이슬람 문명 때문에 세계적 혼란마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헌팅턴은 문명이란 이념의 대결에서 살아남아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런데 서구 문명권이 오만한 착각에 빠져 다른 문명권에 자유주의, 대의제, 법치, 다원주의 등의 보편가치를 강조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문명충돌론에서 이슬람 문명권은 서구 문명이 발전시킨 보편가치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폭력을 미화하는 자신의 문화에 기반해 거대한 단일 이슬람 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한다. 중국 문명권 역시 서구식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막강해진 경제력을 앞세워 중화주의로 뭉친다고 진단한다. 최악은 이슬람과 중국 문명권이 힘을 모아 서구 문명권이 이끄는 세계 질서에 대해 지구 평화가 흔들릴 경우라고도 했다.

우리의 반중 정서를 아랍 걸프국과 이스라엘의 동료들에게 알려주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너희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니 우리는 이란의 위협을 잘 이해 못하더라는 답이 돌아왔다. 외부자는 내부의 사정을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국제 정세는 문명이 아닌 이해관계의 충돌로 요동친다.

* 본 글은 7 월 6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